

누군가 나에게 '쇼'를 강요한다면

박미숙/월간 정신세계 기자

서울 변두리 작은 위성도시의 을씨년스러운 골목길 풍경, 가난을 지붕에 얹고 다다닥 붙어있던 고만고만한 집들, 그리고 누런 코를 닦아내느라 어느새 반들반들해진 아이들의 소꿉바리...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연상되는 햇빛 기억들 사이로 그나마 환하게 빛을 발하며 다가오는 것은, 5월 5일 어린이날. 아홉 명이나 되는 대식구가 다 같이 좁은 마루에 둘러앉아 '짜장면(원칙은 자장면)'을 먹던 장면이다. 그랬다. 그 시절 어린 나는 자장면의 기름진 맛을 사랑했고, 또 다 먹은 후 영망이 된 입가를 쓰옥 하고 닦아내는 것에 행복해 했다.

하지만 특별한 날에 자장면을 먹는 풍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날 때부터 화려한 영상매체에 길든 요즘 아이들이야 한 그릇의 자장면보다는 반짝거리는 조명과 흥겨운 놀이기구와 신기로운 동물들이 가득한 놀이동산을 더 좋아하기 마련 아닌가.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지난 어린이날 9시 저녁뉴스 시간에는 놀이동산을 찾은 어린이들의 표정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중에는 물개며 돌고래 등과 같은 동물들의 쇼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관람하는 장면도 있었다.

아이들이 놀이동산에 열광하는 것이야 그렇다손 쳐도 동물들의 쇼를 천연덕스럽게 즐기는 모습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동물쇼는 말 그대로 동물들에게 어거지로 쇼를 강요하는 인간의 억압적인 행위이며, 따라서 이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거스르는 반생태적인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탓이다.

그런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서울시가 직접 나

서서 무려 36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어린이 대공원 안에 대규모 동물 공연장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공연동물의 종류가 물개, 침팬지, 앵무새, 곰, 애완견, 맹금류 등으로 다양해진 것이 눈에 띈다. 또한 공연 프로그램 역시 물개의 학교생활, 침팬지의 군대생활, 곰의 묘기 식으로 다양하고 치밀해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침팬지의 군대생활의 경우 신체검사와 입소식부터 제식훈련,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외출타기, 팔굽혀펴기, 땀뿜기, 식사시간까지, 인간의 군대생활을 그대로 재현해 낼 예정이어서 환경단체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열대림에서 자유롭게 지내야 할 침팬지를 온갖 가혹한 방법으로 훈련시켜 한낱 인간의 눈요깃감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파괴하고 생태적인 가치관과 감수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다.

그렇다고 지금, 모두가 가난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자장면에 만족하며 산 어린 시절이 더 좋았다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명 있는 모든 것에 서열 따윈 없으며, 따라서 인간이 다른 생명을 소유하고 억압해야 할 권리와 이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리처드 보드라는 작가는 "다른 생명체의 생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그 생명체의 천성을 영원히 바꿔놓고야 만다"고 말했다.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바꿔놓는 것, 어쩌면 그것은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동물쇼와 동물 공연장은 사라져야 한다. 인간이 어느 정도로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시험할 목적이 아니라면. PPFK